

KORDI ISSUE PAPER



2020-3

발행일 2020.12.24. / 발행인 강익구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우)10310 | TEL : 031)8035-7500 | E-mail : webmaster@kordi.or.kr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 연구¹⁾

김 수 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부연구위원
(suelynn@kordi.or.kr)

요약

- 본고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데 목적을 둠
-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기존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연계현황 등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 IDI등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함
- 본고는 이상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수요처로 활용하는 세 가지 모델(연계모형, 사업수행모형, 육성모형)을 제안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내 새로운 사업유형(사회적경제형 일자리사업 등)의 신설을 제안함

1. 배경 및 목적

- ▷ 노인일자리사업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실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4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안정책으로 빠르게 성장하였음.
- ▷ 노인일자리가 양적으로 급격히 확충되고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퍼주기식 복지' '통계 착시' '용돈별이' 등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동시에 동 사업을 둘러싼 비판적 인식도 함께 증가함.

1) 본고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0년 연구과제로 추진한 이소정, 김수린, 최유진, 백학영, 김형돈, 이하진(2020)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 연구」의 연구내용 일부를 요약 정리함.

-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핵심은 공익활동 중심의 단순 복지적 일자리가 확대된 반면 노인들의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또는 재취업으로 귀결되는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로 수렴됨
 - 이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의 필요성을 의미함. 즉,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새로운 형태의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사회의 일자리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며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주체(지자체, 수행기관, 수요처 등)를 넘어 참여주체의 다변화 필요성을 의미함
 -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모집에서부터 수요처(자) 개발 및 발굴, 참여노인 교육 및 훈련, 일자리 연계, 참여자 관리 등 사업수행과정 전반을 관장하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주체임. 반면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발전 도모,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 창출 등 혁신의 주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 이러한 여건은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의 프레임을 벗어나는 새로운 전략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온 사회적경제 영역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프레임 마련을 위한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역사회 일자리창출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적극적인 연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과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유사성(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사회 문제나 취약집단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속성이 유사)으로 인해 성공적인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상생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양적 확대를 거듭해온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질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을 갖는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새로운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을 양성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새로운 수혈을 하는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인들을 사회적경제 영역의 성장에 복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새로운 주체로 키워냄으로써 고령사회의 새로운 노인 사회적 역할 창출에 기여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표 1〉 연구 추진 개요

	과정	내용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해	- 사회적경제 추진 과정, 현황에 관한 문헌 검토 - 사회적경제조직 전문가 자문
2	기존 노인일자리-사회적경제 연계현황 분석 및 함의 도출	- 노인일자리사업 분석: 노인일자리-사회적경제 연계 현황 및 실적 분석
3	사회적경제조직 전문가 조사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IDI(In-depth interview)
4	노인일자리-사회적경제조직 비교분석	-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분석
5	정책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brainstorming	-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를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 도출 - 전문가 자문, 연구진 brainstorming

3. 주요 연구결과

노인일자리-사회적경제 연계 기존 성과분석

- ▷ 최근 몇 년 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경제 활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왔음
 - 특히, 다양해진 수요자 욕구에 부합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노인일자리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활용에 주목함
 - 또한, 늘어나는 사업량에 비해 증가속도가 더딘 일선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논의됨
-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지침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 과거에 비해 사회적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됨
 - (수행기관) '19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
 - (고령자친화기업) '18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

- (시범사업) '19년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시범사업 한시 진행
- ▷ 그러나 상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조직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저조한 상황임.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
 - 관련하여,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방안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탐색되어 왔음을 간과할 수 없음. 즉,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당위성이 고민된 바 없음
 - 같은 맥락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된 사회적경제 활용방안은 제언으로만 그침
- ▷ 실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FGI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한계와 가능성이 동시에 확인됨
 - (사업수행 시 주요 어려움)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기본적인 사업 정보 등 지자체의 지원 부족, 비현실적인 (과도한)사업량, 수요처와 노인참여자 간 기대불일치, 노인참여자의 역량부족,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 등
 - (향후 연계가능성) 새로운 노인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활용,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미션에 부합할 경우 시너지 발생, 일종의 인턴제도로 활용함으로써 고용부담 완화 등
-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그 가능성과 의미를 재고하는 한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지원 등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FGI조사 결과와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욕구가 반영된 새로운 수행기관과 (이를 통한) 수요처의 확보, 시장형사업 등 개별 사업단의 지속가능성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논의될 수 있을 것임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 비교분석

- ▷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 분야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질적인 각 영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접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 영역(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포함)에 대한 비교분석 작업을 수행함
 - 분석 내용은 각 사업의 정의, 사업의 발전 과정(연혁), 사업별 현황, 사업의 세부 유형 및 주요 내용, 각 사업별 지원 내용, 사업별 지원 인프라(전달체계) 등임.
 - 분석결과, 각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차이점과 유사점이 동시에 발견
 - (사업정의) 사회적 목적 실현, 공익적 목적, 지역문제해결 기여 등과 함께 주로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공통적임.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비교대상인 사회적경제조직과 달리 노인층에 특화

- (사업연혁) 국가주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점과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창출이라는 공통맥락을 공유함.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마을기업과 함께 독자적인 법적근거가 부재
- (사업 세부유형 및 주요내용) 마을기업을 제외하면 수도권 및 도시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유형이 압도적인 분포를 차지하는 경향성이 있음.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공익활동 비중이 압도적
- (사업별 지원내용)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판로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등을 포함.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이 중심임
- (사업별 지원인프라) 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독자적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체계 및 공공 지원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 연계를 위한 부처간 합의와 협업이 필수적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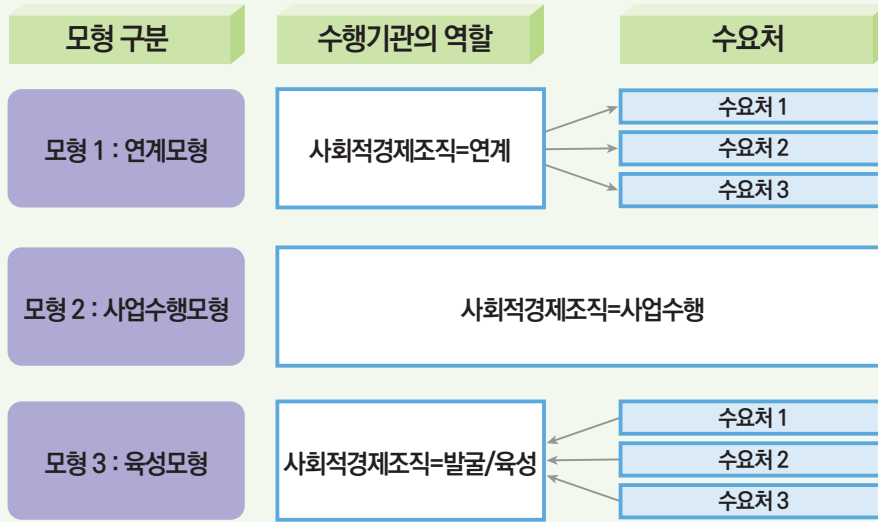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조직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참여 방안

▷ 사회적경제조직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필요성

- (노인일자리사업 측면) 수요처의 효과적 발굴, 사회적경제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사회적경제의 제도권 편입을 통한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 (사회적경제 측면) 규모의 경제 실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사회적가치 실현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행기관 참여 모형

- (모형 1) 연계모형으로서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정적 관리이며 수행기관이 수요처 연계의 역할만 수행하므로 수요처는 수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외부에 존재함
- (모형 2) 사업직접수행모형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수요처가 수행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형태. 즉 수요처가 수행기관과 동일한 조직.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이미 진입한 조직이 조직원이거나 사원인 노인과 함께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으로 참여
- (모형 3) 육성모형으로서 수행기관이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는 모형 1과 유사하고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모형 2와 유사하지만, 수행기관인 사회적경제조직이 아직 조직화되지 못한 팀을 발굴하여 수행기관 조직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인큐베이팅이 되는 형태. 따라서 수요처는 수행기관과 다르지만 수행기관 안에 존재. 수행기관의 최종적인 목적인 수요처를 육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시키는 것임



[그림 1] 사회적경제조직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참여 방안

▷ 수행기관 참여 가능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과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 수행기관 참여 가능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

구분	수행기관의 역할	사업의 수행	수행기관의 인큐베이팅 기능	참여 가능 사회적경제조직
모형 1	연계	수요처	행정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으로 발돋움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제외)
모형 2	사업 수행	수행기관	참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 중간지원조직은 부정적
모형 3	육성	수요처	강력한 육성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지원조직 • 컨설팅 기능을 보유한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제외)

모형 1(연계 모형) 참여를 위한 정책적 제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방안에 대한 홍보를 노인인력개발원 측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중간지원조직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연계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정부출연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상급기관 예를 들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중간지원조직 등과 협업하여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 TF를 구축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조직 연계의 위상 강화

▷ 민간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보상이 필요. 이를 통해 민간 중간지원조직을 유인

- 협약을 체결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이해 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이를 통해 학습하고 경험을 축적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톱-다운 방식의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이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의 관심도 향상
-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며 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모형 2(사업직접수행 모형) 참여를 위한 정책적 제언

▷ 고령자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 모형 2의 목적은 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는데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자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적절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령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할애
- 1차 연도 사업에 참여한 고령자가 2차 연도에서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주목적 사업이 유사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교류 증진

- 노인일자리가 주목적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 따라서 평소부터 이들 사회적경제기업과 교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을 경험한 고령자의 창업 독려
- 노인일자리사업을 모형 1 혹은 모형 3으로 경험한 고령자가 모형 2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입문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고령자가 협동조합을 통해 모형 2의 수행기관이 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

- 따라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이들 고령자 중심 팀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형 2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배분해야 하며, 평상시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전문 멘토단을 선정하여 지원

모형 3(육성 모형) 참여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창업 교육이 주 목적 사업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참여 독려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이 주 목적 사업인 사회적경제기업이 모형 3을 통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시작부터 고령자 팀을 발굴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음
- 따라서 창업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평상시 홍보 방안을 마련

▷ 기존 민간지원 조직의 참여 타진과 교류 강화

- 기존 민간지원 조직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평소 교류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4.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일자리-사회적경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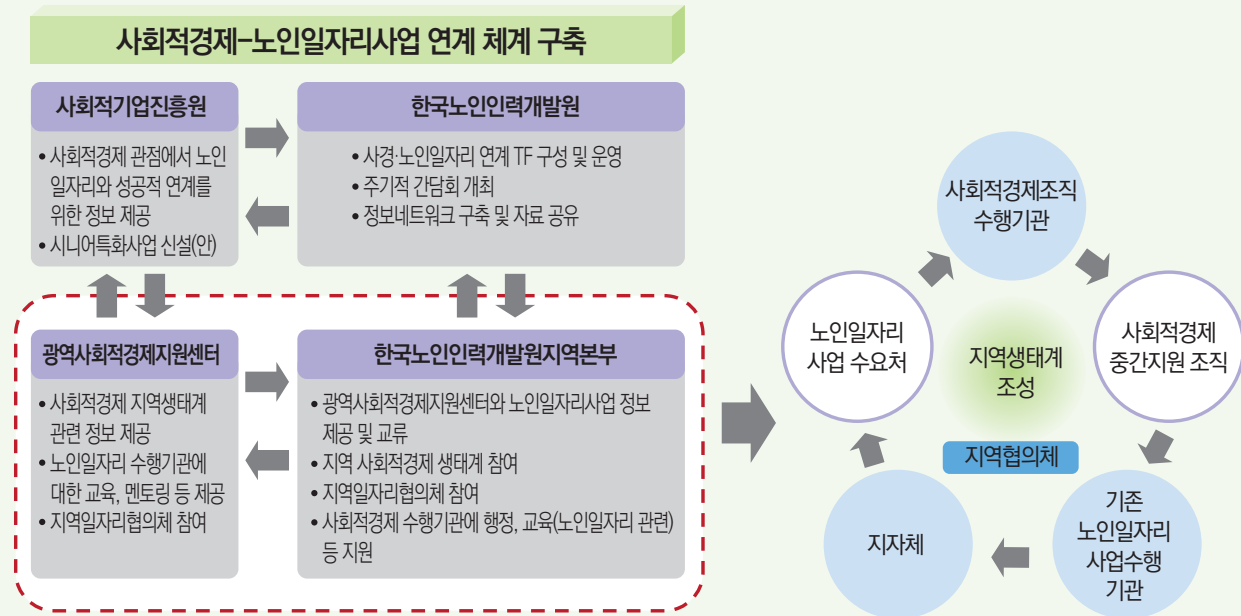
▷ 과제 1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경-노인일자리 연계 TF' 구성을 통한 전국단위 연계체계 구축

- 주기적 간담회 실시, 정보 네트워크 구축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활용가능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연계
 -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진흥원과는 노인인력개발원이 협력하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에 노인에 특화된 쿼터를 할당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에 선발되면, 교육, 멘토링, 창업공간과 자금 지원, 사업비 배정, 자원연계·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에, 노인일자리사업단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창업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임

▷ 과제 2 : 광역단위 연계 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광역 중간지원조직, 기초 중간지원조직과 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협력체계 구축.
- 노인에 특화된 교육,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운영 모색
- 지역협의체 중심 기초 지역단위 연계 활성화

- 지역 일자리협의체를 거점으로 지역 사경 및 노인일자리 담당 공무원, 민간기관, 지역단위 지원조직의 논의 테이블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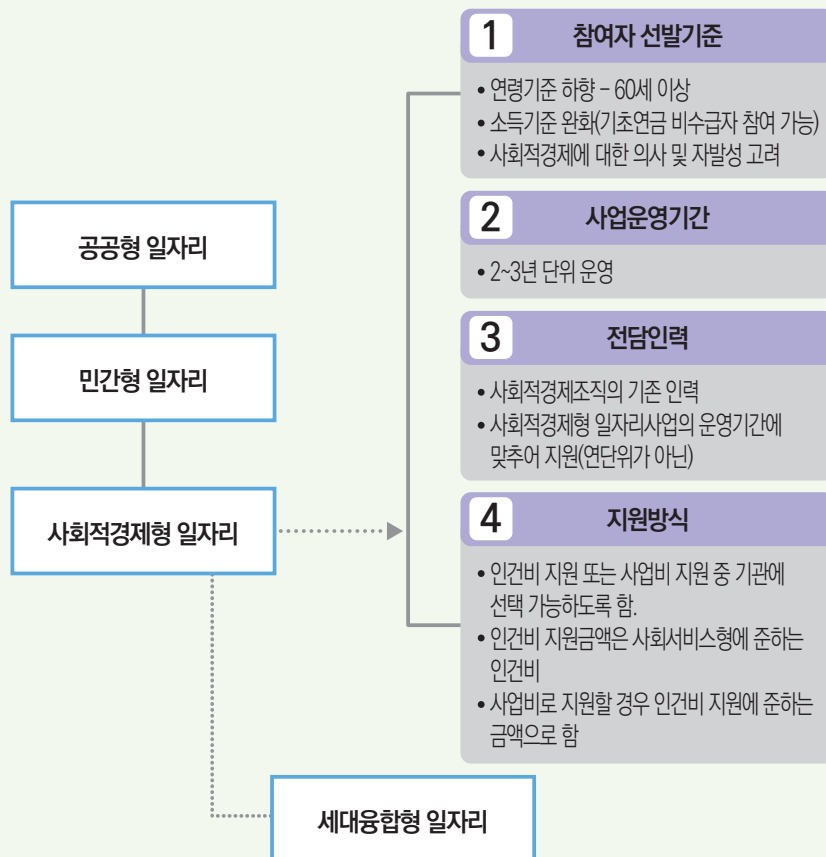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경제-노인일자리사업 연계체계 구축

또한, 노인일자리-사회적경제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 사회적경제와 노인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연계하려면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 프레임을 벗어나는 새로운 프레임의 모색이 필요함. 따라서 사회적경제 연계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내 새로운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
- ▷ 새로운 제도 개선은 두 가지 방향을 취할 수 있음.
 - 시나리오 1 : 노인일자리사업 내 '사회적 경제형' 일자리사업 신설
 -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기관으로서 노인대상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실시하는 모형
 - 수행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지원조직,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역할은 5장에서 제시된 세 가지 모형 (연계모형, 사업수행 모형, 육성모형)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두 가지 이상 모형의 중복적 수행 가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형 일자리의 참여자 선발 기준 : 기존의 선발기준과 달리 연령기준 완화(60세 이상), 소득기준완화(기초연금 비수급자 참여 가능),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발성 등을 고려한 선발기준 마련
 - 사회적경제형 일자리사업 운영기간 : 사회적경제형 일자리사업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이 연단위 운영이 아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지원기간과 유사한 2~3년 단위 운영기간으로 설정

- 사회적경제형 일자리사업 전담인력 :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형 일자리사업의 주 수행기관이 될 것이므로 사회적경제형 일자리사업의 전담인력은 해당 사경조직의 기존 인력일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별도의 자격규정은 필요하지 않으나 사회적경제형 일자리사업의 운영기간에 맞추어 연단위 지원이 아닌 사업수행 기간과 동일한 지원기간을 설정
- 지원방식 :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식. 인건비 지원금액은 27만 원(공익활동)에서 59만 4천 원(사회서비스형)까지 편차가 있음. 사회적경제형 일자리의 경우 사회서비스형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 또는 기관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과 같은 사업비 지원방식(금액은 인건비 지원에 준하는 금액) 가운데 선택하도록 다양성을 확보
- 사회적경제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하위형태로 “세대융합형” 일자리를 고민해 볼 수 있음.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기인하는데 첫째, 노인들만으로 복잡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세대통합적인 성과 및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 ⇒ 자활기업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무자가 함께 창업하여 시장에 나갔을 때 생존율이 높아짐. 실무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젊은 연령층과 사업단을 함께 운영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 젊은 세대가 세대융합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따라서 세대융합형 일자리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과 노인일자리사업의 콜라보로 진행되는 형태가 바람직함



[그림 3] 시나리오 1: 신설 사회적경제형 일자리 모형

- 시나리오 2 : '사회서비스형'의 하위 유형 도입
 - 사회적경제형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의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한 유형으로 도입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급여, 참여인력 선발기준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와 연계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부합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
 -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2019년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아직까지 정체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음
 - 다만 사회서비스형은 다른 일자리사업 유형과 달리 참여노인의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참여 대상자 폭이 확대됨.
 - 동시에 보다 전문화된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시킬 잠재성 보유
 - 사회서비스형 가운데 '사회적경제 연계형'을 신설해 자발적 의지가 있는 노인 참여자를 모집해 교육단계부터 시작해 성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 인큐베이팅 추진.
 - 이 경우에도 연 단위로 분절된 사업운영 체계는 개편해야 함.
- 인건비 지원 이외의 확장된 지원체계 구축 필요(ex. 공간 지원, 행정지원 등)

참고문헌

이소정, 김수린, 최유진, 백학영, 김형돈, 이하진 (2020).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미간행보고서.